

## 기독교적 소명으로서의 학문: 제롬에서 아퀴나스까지



해리스 하비슨(E. Harris Harbison)  
번역: 이상규(고신대학교 교수, 교회사학)

기독교인 학자(the Christian scholar)라고 하면 흔히 기독교인 시인이나 기독교인 음악가 혹은 기독교인 과학자처럼 괴짜라는 취급을 받기 쉽다. 학문과 영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정신의 만족과 영혼의 평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일찍이 3세기에 터툴리안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대학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철학자와 기독교인 사이에, 철학도와 천국 시민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호기심이나, 복음이 아닌 어떠한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자신을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소명이라고 확신했던 학자들은 기독교의 거의 초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정상을 다소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그 소명을 따라 살았던 이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주지 않았다. 사실, 기독교인의 여러 신분 유형 중 하나인 학자(scholar)는, 성자(the saint)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 비해서 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

\*) 이 논문은 *The Christian Scholar in the Age of Reformation* (Eerdmans, 1988), 1-29를 번역한 것임. 본문의 각주는 생략함.

최근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행한 일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세 시대를 다루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그 위대한 대학인(Schoolman)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도 성 프란시스코와 버나드와 힐데브란트를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 어찌면 그 말은 학자들의 저술은 지금도 인기가 없지만 과거에도 그랬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이다.

학자들의 저술이 기독교계의 논평이나 주석 분야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전통에 깊이 내재해 있는 오늘날 우리가 ‘반(反)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그 흐름의 원천은 어찌면 신약성경 자체 안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찬양하시면서, 생명의 종교적 의미를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마음이 단순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학식 있는 자들을 ‘경건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너희 율법사들(즉 법률학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너희는 지식의 문을 열 열쇠를 가져가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았도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위인들 중에는 학자가 없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고린도전서 2장)에는 ‘교육 받은 헬라인들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다’는 말씀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현명한 자들의 통찰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현자들, 서기관들, 이 세상의 비평가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바보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이 자기의 모든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순전한 어리석음’이라는 기독

교의 메시지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누구든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 참으로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다. 것처럼 고대의 터툴리안으로부터 오늘날의 기독교 비합리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이든지, 세상의 이성으로는 ‘순전한 어리석음’과 복음의 불합리성이라고 놀림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증명하려는 유식한 자들의 모든 노력을 거부하려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신약에는 그 첫 번째 흐름과 경쟁적으로 흐르는 또 하나의 조용하고 간접적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성경을 깊이 공부하신 분이셨다.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후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등장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우리는 흔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들었던 하늘의 음성이나 광야에서 받은 환상에 순종하셨다는 기록이 어딘가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께서 구약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보다 더 충만하게 계시되었다는 말이다.

또 말씀에는 해석하고 비평해야 할 여지도 있었다. 예수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위대한 종교 전통과 연관되어 있음을 잘 의식하셨고, 그 전통

에 깊이 헌신한 분이셨고, 또 그 전통을 만들라는 소명 의식을 가진 교사이셨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학자’이셨다.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례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유식한 저자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도 학자였다는 사실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은 사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잡한 헬라 교리의 관점에서 해석한 신학논문의 서문, 아니 어쩌면 (최근에 발견된 사해 사본이 암시하는 것이 옳다면) 그리스도를 헬라 교리만큼 세련되었던 에세네파 전통의 관점에서 해석한 심오한 신학논문의 서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4복음서는 비할 수 없이 뛰어난 아름다움과 통찰력을 가진 전기문이지만, 동시에 넓은 의미의 학술문, 즉 기독교의 복음을 그 복음이 처한 전체 상황인 헬라 및 히브리 문화 속에서 해석해 낸 학술논문이다.

바울은 물론 히브리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다. 후대 기독교인들의 주해 작업은 다 그의 구약성경 해석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의 해석의 특징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는 것, 즉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흥망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였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히브리 성경에 정통하고 헬라 사상도 잘 아는 학자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조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의 긴 역사적 준비와 발전으로 해석하는 나름의 역사철학의 토대를 형성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서신에는 심오한 학술적 저술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히 사도들에게 ‘학자’라는 칭호를 붙이기만 하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쉽게 이해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의 저술은 물론 그것보다 훨씬 깊다. 그들은 기독교 저자들 중 처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나름대로 그 믿음의 뿌리인 유대교 전통과 연결하고, 또 복음을 그 선포의 대상이 되는 당대의 세속 문화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학문적 과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잠시 종교 전통,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학문이 어떤 일반적인 기능을 담당했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자. 종교의 발달 과정 중 어떤 시기에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실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교리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교리와 실천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또 그 각각의 기원과 성장 및 다른 교리들과의 갈등을 살펴 보아야 할 때가 있다. 어떤 시기에는, 부패한 전통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열망이 그런 세밀한 분석을 요청하는 일차적인 동기로 부각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문제시되는 전통의 기원 및 신앙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 세속 문명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에는, 신앙이 문화와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어 종교 전통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청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물질 우주의 본질이나 인간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인류의 지성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시기에는, 그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전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럴 경우 기독교 학자의 소명은 아마도 방금 제안한 세 가지의 주요 과제 중 하나 혹은 그 세 가지가 조합된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문의 과제를 정리하면, (1) 히브리-기독교 전통 자체를 재검토하는 일, (2) 그 전통을 주위의 세속문화 및 세속전통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일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속전통이라 하면 일차적으로 그리스-로마 전통을 의미했다), 그리고 (3) 신앙과 과학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화해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려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인 학자들은 종종 (1)

에는 가장 많이 집중했으나 (3)에는 가장 적은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지성들은 세 가지 모두에 관심을 기울였었다.

초대교부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진리 탐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 전통 안에 있는 중요한 교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학자를 새로운 우주관의 관점에서 신앙을 재해석하는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거나 성경과 고전학문을 연결하여 재해석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이다.

이런 식의 기독교인의 소명 이해는 솔직히 별로 극적이지도 않고 별 흥미도 일으키지 못한다. 학자는 성인(聖人)이나 예언자에 비해 별 중요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언급한 교회의 여러 직분에는 학자의 이름이 없다. 그러나 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능력자들과 신유자들, 방언자들을 말하고 거기에 통역자들을 더했을 때, 혹시 그 마지막 자리가 학자들을 위한 여지는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분명히 학자들은 기독교 역사의 다양한 전환기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사례 중 하나는 그리스-로마 문명이 마지막에 이르렀던 백 년 여의 기간이었고, 또 하나는 중세 전성기였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였다. 이 장에서는 매우 총론적인 방식으로 처음 두 시대를 다루고, 그 이후에서는 세 번째 시대를 다룰 것이다.

기독교적 학문 전통의 의미에 대해서, 즉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학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기 위해서 후기 로마제국 시대의 두 사람, 그

리고 중세 전성기의 두 사람 등 네 사람의 탁월한 모범사례를 간략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우리는 최소한, 소위 사회학자가 말하는 기독교인 학자의 일반적인 ‘모델’이나 ‘타입’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공통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었고, 어떤 다양한 종류의 해결책들이 어떻게 되풀이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개인에게서도 다양한 태도와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인의 독특성과 예측 불가한 요소들에 대해서 언제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몽테규는 그의 첫 수상집에서 “참으로 인간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허탄하고 불안한지, 그 누구도 인간은 늘 이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갈파했다. 기독교인 학자의 참 모습을 발견하려고 시도해 본 역사가라면 누구나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독교 전통은 계속 변하고 달라지지만 여전히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명확한 정의(precise definition)의 대상은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구 가능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전통의 위대한 담지자 몇 사람을 자세히 조사한다면, 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는(precisely formulated) 못할 지라도, 그 전통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제롬과 어거스틴부터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그 두 사람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의식적으로 그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을 다 따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롬과 어거스틴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두 사람은 정확히 동시대의 인물로써, 학자이자 교사로 살았지만, 그 성격은 여러 면에서 (진지하든 가볍든) 서로 반대였고, 서방 라틴교회의 두 교부

로서 후대의 기독교 학자들이 따른 두 종류의 전형이었다. 그 두 사람이 학문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각기 어떤 특징을 가졌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자.

제롬(347?-420)은 감각적이면서 금욕적이고, 다혈질이면서도 예민하고, 대적들에겐 독설을 퍼붓지만 친구들에겐 다정하고, 완강한 자부심을 주장하다가 돌연 겸손해지는 등, 모순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모순은 이방의 고전 작품들에 대한 그의 양면적인 태도였다. 그는 세속 학문 세계에 대해서 매력과 반발심을 동시에 느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기독교와 이방종교 사이의 필연적인 모순을 강조했다지만, 정작 기독교는 아직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당시의 지적 환경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의 자녀들도 읽고 쓰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의 위대한 고전작품들을 교재로 문법과 수사학과 변증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제롬처럼 기독교인 학습자들이 고전문화에 동화될 수 있다는 위험은 상존했지만 별 다른 해결책은 없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터툴리안처럼 기독교 신앙과 이교문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설교했다. 지도자들 중, 어쩌면 세속 학문도 ‘만일 충분히 조심하기만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더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위대한 학문성을 가진 학자들은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매우 사랑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다. 어린 제롬에게도 그런 성향이 농후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그가 고전문학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와 동일한 열정으로 (물론 동시에는 아니지만) 부모가 믿던 기독교의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뿐이다. 어떤 소설가는 제롬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문



을 사랑하고 젊은 처녀들을 사랑했는데, 꼭 그 순서대로 사랑했다”고 묘사했다.

젊어서는 거침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는 동일한 열정으로 금욕적인 경건 생활을 시작한 제롬은 자신의 다양한 열정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다. 마음으로는 이교의 고전에 정신적인 매력을 느꼈고 몸으로는 넘치는 성욕을 제어하기 어려웠는데, 그의 양심은 그 두 가지 욕망을 다 정죄했다. 그런 내적 갈등이 끓아 터진 것이 아마도 375년 무렵에 그가 안디옥 근처에서 경험했다는 유명한 환상(vision) 체험이었다.

9년 전에 경험한 자신의 환상을 언급한 제롬의 글을 보면, 기독교 금욕주의자가 되겠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키케로나 플라우투스의 책을 흠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몇 시간씩 금식기도를 해야 했다고 한다. (그는 벌써 수 년 동안 성경공부를 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가 애독했던 이방 작가들에 비해 너무 무례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열병을 앓게 되었는데, 너무 쇠약해져서 뼈만 남게 된 어느 날,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환상을 보았다. 갑자기 그의 영혼이 눈을 뜰 수 없이 찬란한 빛을 입은 심판자 앞으로 끌려 올라갔다.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내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질문자는 ‘거짓말. 너는 키케로의 제자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다. 이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고, (심판의 선고대로) 채찍질을 당했는데, 신체적인 고통보다 양심의 불로 인한 가슴의 고통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결국 그는 소리를 지르며 맹세했다. “주여, 내가 만일 세상적인 책들을 다시 소유한다면, 아니 그런 책을

다시 읽기만 해도, 주님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겠나이다!” 잠에서 깨고 보니 그의 어깨엔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제롬이 완전한 기독교인 학자로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사실 제롬이 보았다는 그 열병과 환상 이야기는 그 사건이 있은 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친구 유스토키우스(Eustochium)에게 금욕주의를 변호하는 긴 편지를 쓰면서 회상한 내용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제롬은 과장법을 매우 좋아했다. 더욱이 심판대 앞에서 채찍질 당하는 꿈은 당시 4세기의 예민한 양심가들 사이에선 아주 흔한 일화였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제롬이 그 꿈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그런 꿈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우리가 아는 한, 꿈에서 ‘키케로주의를 믿는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그에게는 그 꿈의 의의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루피누스(Rufinus)가 “제롬은 다시는 이교도 저자들의 책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서약한 지 2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고전문학을 즐겁게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자, 그는 “꿈에 너무 많은 의의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응수했던 것이다. 제롬은 꿈에서 생긴 일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꿈에서 한 맹세도 지킬 의무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꿈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을 퇴보나 치매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반응이다. 아마도 제롬이 과거의 환상과 11년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에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여 전

에 없던 여유를 갖게 된 것이며, 그래서 꿈에 맹세하는 것 같은 초기의 정신적 압박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신의 소명에 대한 깊은 내적 갈등이 그의 꿈에서 그런 극적인 장면을 만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이 제롬의 환상을 평가할 때, 그의 성격과 작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평가하고 그 환상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건전한 작가적 본능에 근거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디서, 제롬이 자신의 소명을 확실하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환상을 본 직후에 갔던 광야에서였을 수도 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저 심오한 기독교 학자 나치안주의 그레고리(St. Gregory Nazianzen)와 함께 오리겐의 작품과 성경을 연구하던 때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다마스수 교황이 그를 로마로 소환하여, 이후에 그의 일생의 대작으로 판명된 그 작품의 진정한 시작이 된 신약성경을 헬라어 원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기기 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이 점진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환상을 설명하며 중요한 표현을 썼다: “그때 이후로 나는 인간의 책들에 쏟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들을 읽게 되었다.” 그가 쓴 ‘그때 이후로’라는 표현은 비록 정확한 사실묘사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 전체 표현은 우리에게 제롬이 자신의 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암시한다. 제롬은 학문에 대한 해갈되지 않는 자신의 갈등을 그 대상을 바꿈으로써, 즉 세속적인 학문에서 거룩한 학문으로 바꿈으로써 해결했다는 사실이다.

386년, 제롬은 은퇴하여 베들레헴에 과부들과 제자들로 이루어진 특이한 작은 공동체를 설립하고, 거기서 성경 전권을 번역하고 많은

부분을 주해하는 거대한 작업에 몰두했다. 그를 방문했던 친구는 “그는 언제나 독서에 빠져 있었고, 정신이 온통 자기 책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그는 밤낮으로 쉬는 날도 없이 늘 무엇을 들고 읽든지 쓰든지 하고 있었다.”

베들레헴에서 쏟아져 나온 그의 저술은 참으로 괄목할 정도였다: 당시의 생활상을 선명하고 신랄한 문체로 그린 편지들, 성경주해로부터 처녀성의 아름다움과 딸들의 양육법에 이르기까지 전 방면의 주제를 논한 논문들, 여러 편의 신학 논증과 장편의 역사적 저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고 (그의 신약 판은 개정에 불과했다) 원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생생한 서문들을 붙인 놀라운 구약성경 번역들이 그 결과였다.

그 베들레헴 초기 시절의 편지들과 성경의 서문들을 읽어 보면, 그때는 이미 그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진다. 394년에 그는 어린 친구 폴리누스에게 이렇게 썼다.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은 교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권장할 만한 자질이다. 나는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배웠고, “자기가 그렇게 배웠다는 사실을 감사했다.” 사도 요한은 배우지 못한 어부가 아니었다. 만일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인 로고스에 대해 그렇게 심오한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제롬은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 글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거룩한 책들 가운데 살고, 성경을 묵상하고, 다른 무엇보다 오직 그것만 알고 구하라고 파울리누스를 권면했다. 사무엘과 열왕기의 서문에는, 모두가 나름대로,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값비싼 돌들로, 다른 이는 다

양한 색깔을 가진 천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것을 드린다고 썼다.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은 성막을 덮는 데 쓰일 “가죽과 염소 털”처럼 자신의 성경 번역과 다른 저술들을 봉헌하여 성막을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썼다.

그로 볼 때, 환상 이후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롬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세속 문학에 대한 사랑 사이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한 것이 분명하다. 마그누스(Magnus)가 그에게 왜 이교의 저자들을 그렇게 자주 인용하느냐고 책망하자, 제롬은 자기뿐 아니라 모세와 바울 등 많은 구약과 신약의 기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했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제롬은 바울이 “포로 여자가 머리와 눈썹을 밀고 손톱을 잘라 내었으면 네 아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던 신명기(21:10절 이하) 계명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자신도 세속 학문을 아내로 삼되,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을, 그것이 우상숭배이든 쾌락이든 오류이든 정욕이든” 다 깎아내고 잘라내었으며, 특히 자신은 “소위 이방인으로 인한 그 부정함” 덕분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롬은 매우 유식했고, 단어들과 이름들에 대한 끝없이 샘솟는 흥미를 가졌다. 또 문헌학적으로 경탄할 만한 지식을 가진 학자로서, 자신이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 “삼중언어”에 능통하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평생 배우고 알고 저술하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 심지어 어떤 불손한 현대비평가는, “제롬은 재치 있는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면 낙원에 들어갈 기회도 보류할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제롬의 연구 방법은 제멋대로이고 중구난방 식이었지만, 비판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고, 논적들에겐 금방 천재성을 발휘하여 찬란한 독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이었다. 모

든 위대한 학자들이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연구 주제가 가진 난해함과 복잡성을 깊이 존중했지만, 아무런 문헌학적 준비나 지성적 훈련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다스런 노파들과 망령 든 노인들, 장황한 궤변가들”에겐 자신이 아는 가장 신랄한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었다: “어떤 자들은, 아무런 수치심도 없는지, 여자들에게 배워서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는 오직 성경해석과 성경번역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불태웠다. 그가 저술한 라틴어 역 벌게이트 성경은 기독교 학문을 나타내는 최고의 업적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번역을 위해 그는 당시 세속 학문의 최고 도구들을 총동원했다. 제롬은 그 번역을 통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느낄 수 있는 많은 문헌학적 뉘앙스를 라틴어 대중에게 알려 주었고, 그럼으로써 서방의 기독교 문화를 창설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신학자나 철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사변적이기보다 경험적이었고, 추상적인 개념보다 역사에 매료된 사람이었다. 문헌학적 세부사항들은 매우 사랑했지만, 신조나 신앙고백의 세부사항들은 불편해 했다. 광야에서 그의 동료 수사들이 그를 삼위일체 논쟁으로 끌어 들이려고, 당신의 정통교리는 무엇이나고 묻자, 제롬은 다소 순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세례 받을 때 아무런 신앙고백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매일 나에게 신앙고백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백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는다. 심지어 서명까지 해줘도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420년, 죽기 전의 제롬은 매우 낙담하고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십 년 전에 교황청으로부터 수도원장 경질 명령을 받은 후 그는 계속 정신이 매우 위축된 상태였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작은 수도원 공동체를 펠라기우스 파가 점거하게 되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기독교 학문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학습

에 대한 불타는 욕망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헌신과 독특하게 조화시킨 그의 연구방법은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학문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성경번역과 명료성을 향한 그의 놀라운 흥미, 반드시 원 자료를 되살려 내려는 그의 끈기, 바른 이해의 근거가 되는 문헌학적 세부사항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 (그는 “예언자가 되는 것과 번역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라고 썼다), 번역에 연관된 제반 어려움에 대한 그의 폭넓은 지식,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켰던 바, ‘학문은 고귀하고 중차대한 의의 있는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는 그의 신념 등 그의 모든 특징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재탄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거스틴(354-430)은 제롬에 비해 매우 잘 알려져 있으므로, 어쩌면 그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어거스틴이 우리의 목적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의 생애와 저술을 통해서 장차 오는 모든 기독교인 학자들에게 ‘인간은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지식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극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니시 크레데리티스, 논 인텔리제티스(Nisi crederitis, non intelligetis), 믿지 않으면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말은 어거스틴 이후 천 년 동안 기독교 세계가 된 유럽에서 지식산업의 초석이 되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하기 위해 믿어라.” 이성으로 작동하는 마음은 루멘 데이(lumen Dei), 즉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물론 맹목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말은 아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성인이 ‘진리는 인간의 마음만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고 증언한 말이다. 진리는 반드시 전인으로서 포착해야 하고, 개인의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일은 시작부터 믿음의 도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지성의 눈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다.

어거스틴도 제롬처럼 학습에 대한 열렬한 갈증으로 시작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제롬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비록 방식은 달랐지만 이교도의 고전을 읽고 깊은 동요를 느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은 19세 때 키케로의 ‘호르텐시오’(Hortensius)를 처음 읽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감명 받은 것은 그의 문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었다. “주여, 이 책으로 인하여 나의 열망과 기도는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되었사오며, 다른 소망이나 소원들은 다 사라져버렸나이다.” 어거스틴은 너무 자기 욕망에 빠져 성경을 알지 못하던 자신이 그 책을 읽자 가슴 속에서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기록했다. 일 년 후엔 아리스토텔레스에 심취해서 무엇을 읽든 “별 어려움 없이”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별 유익이 없었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어거스틴은 “빠른 이해력과 정확한 판단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만, 신적인 조명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은사들은 오히려 파멸을 초래하는 데 사용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어거스틴은 제롬처럼 이교도 사상가들과 결별하고, 기독교 인문주의를 변호하는 고전적인 변호서인 ‘기독교교육론’(On Christian Instruction)을 저술하게 되었다. 제롬과 어거스틴은 세속 학문에 대해 매우 특이하고 다른 평가를 내렸다. 제롬에게 세속 학문은 매력적인 포로된 여자 같았다. 그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 율법이 허용한다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어거스틴에게 세속 학문은 이방의 은과 금, 즉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중에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애굽인들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노략물 같은 것이었다. 어거스틴에게 세속 학문은 “진리에 쉽게 원용할 수 있는 교양학문이자 도덕 원칙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었다.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세속 학문을 사랑해도 되고, 심지어 흠쳐서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한 그 두 극명한 사상을 가진 인물들에게서 기독교 인문주의에 필요한 거의 모든 논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어거스틴은 세속 학문과 기독교 신앙의 통찰력 사이에 한 가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삶을 돌이켜 보니, 자신이 젊은 시절 마니교에 빠졌다가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기까지, 모든 지성의 향해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어거스틴은 미묘한 내면을 탁월하게 분석한 글에서, 자신이 먼저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다가 그 후에 성경에 이르게 된 그 시간적 순서 자체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그 사상의 영향을 반드시 기억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덕분에 자신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 길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던 자들[즉 플라톤 철학자들]과 저 복된 땅을 바라보고 또 상속하게 하는 그 [성경의] 도를 아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그는, 만일 자신이 먼저 성경에 깊이 빠졌었다면, 아마 나중에 플라톤주의 책들을 읽고 거기 미혹되거나 플라톤주의 책들만 연구해도 결국 기독교 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만한] 확신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자신의 지적, 영적 발달과정에서 그 경험들의 순서가 달라졌다면, 자신은 지적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기에 걸려 넘어졌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회심 경험에는 몇 가지 유의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386년, 제롬이 안디옥에서 환상을 보고 약 11년이 지난 후, 밀란에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한다. 당시의 어거스틴은, 비록 개종한 지성인이었지만, 아직 의지로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정원의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가 알피우스(Alypius)에게 물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 무식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천국을 ‘소유’하는데, 왜 배운 것도 많고 원하는 마음도 가진 우리는 이렇게 혈과 육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을까?”

그는 그때 배운 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결단의 순간에는 유식자나 무식자나 실제로 별 차이가 없고, 따라서 배움은 구원과 무관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바로 그 때 소년의 음성이 들렸다: “들고 읽으라.”(take up and read). 그 구절은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인데, 어거스틴은 그 구절을 읽고 마음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졌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의 마음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완전한 결단을 한 후, 어거스틴은 (혼인을 포기하는 것 외에) 유일하게 더 필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선택’의 상징으로, 수사학 교수직을 조용히 사임하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배움 자체를 단념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다작가라는 그의 유명한 경력의 시작이었다. 그는 즉시 밀란 근처의 작은 마을 카시키아쿰으로 은퇴하였고, 거기서 지혜의 본질과 진리를 인지할 가능성에 관하여 몇 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가로운 강연을 하며 지적인 삶을 육성하는 것은 당시에 최고되는 고전 전통이었다. 어거스틴은 그 대화들을 통해 자신이 지식에 이르는 열쇠를 발견했음을, 즉 신자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제롬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는 것보다 발견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대신에 그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

고, 언젠가는 반드시 지혜를 발견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확히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이제 겨우 33세인데, 끝까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지금 확신하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도 진리를 파악하기를 가장 원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비록 그 때의 회심 경험으로 어거스틴 자신(과 후대의 그의 독자들)에게 학습과 구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평생 작업이 된 학습과 저술도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 결과, 과거의 누구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어거스틴의 작품들이 산출되었다. 어거스틴은 특히 기독교 윤리학을 개발하여 펠라기우스주의에 내재된 스토아주의를 대치하고자 했다. 특히 410년, ‘알라릭(Alaric)에 의한 로마 함락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논박을 준비하던 중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교회론과 은총의 신학을 세웠는데, 그 둘은 중세 시대 동안에는 계속 평형 상태를 유지했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는 가톨릭은 그의 교회론을 고수하고 개신교는 그의 은총의 신학을 택하는 것으로 분리되었다.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를 섞어 기독교 사상의 구조를 세움으로써 기독교철학의 진정한 창설자가 되었다.

청년기에 가졌던 지식에 대한 그의 목마름이 ‘종교적 회심과 도덕적 완전성은 학문적 업적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암묵적인 신념에 근거한 거대한 연구와 해석 프로그램으로 탈바꿈된 것이었다. 어거스틴은 ‘순수하게 세속적인 진리 탐구’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말이라고 보았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회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학자의 소명을 받았음을 인식했다. 그것을 우리 방식대로 다시 표현하면, 어거스틴의 소명은 고대 문명이 해체되던 시기에 그가 향해 온 광활한 지성의 바다와 그가 경험한 깊은 종교적 경험을 이용하여 고전문화와 기독교 신앙 사이에 중재자가 되라는 소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제롬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인물이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차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제롬은 여러 번의 환상을 본 ‘한번 태어난’ 기독교인 같았고, 어거스틴은 ‘두 번 태어난’ 기독교인 같았으며; 제롬은 문헌학자로서 단어들과 언어를 사랑했고, 어거스틴은 철학자로서 개념들을 사랑했고; 제롬은 세속적 실재에 매료되어 때로 압도당하기도 했고,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영혼에만 집중했고; 제롬은 이교도의 학습에서 위험을 감지했고, 어거스틴은 학습 자체에서 위험을 감지했고; 제롬은 실재의 복잡성에 감동받아 종종 판단을 보류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어거스틴은 회의론에서 확신으로 갔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교조주의(dogmatism)로 옮겨갔다.

두 사람은 지중해의 절반 정도나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394-416) 서신으로 성경해석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어거스틴은 ‘칠십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지만, 히브리어 성경보다 낫거나 최소한 동등한 권위를 갖는 영감된 번역 성경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제롬의 자신감은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대한 자신의 문헌학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어거스틴은 특히 언젠가 제롬이 던지시,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한 말에 분격했다. 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고, 제롬은 그의 비판으로 전혀 기가 죽진 않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이단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하여

논쟁을 멈추자고 제안하며, 어거스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편지를 보냈다. 제롬이 위대한 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다면, 어거스틴은 위대한 기독교인이자 학문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만일 기독교인 학자의 전형이란 것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은 분명히 그 두 가지 전형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제 700년의 세월을 건너 뛰어 중세 전성기의 가장 흥미로운 학자 두 사람, 즉 피터 아벨라드(1079-1142)와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에게 우리의 관심을 모아 보자. 그들에게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두 사람에 반드시 필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지성사(知性史)의 관점에서 보면, 12세기 전반기는 로마 함락 이후 가장 흥미진진한 50년이었다. 오직 생존이 목표였던 장기간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유럽에서는 흘러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고,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스페인, 시실리, 소아시아 지방 등지를 여행하며, 이슬람 도서관들을 살살이 훑어 아랍 사람들이 보존하고 주해를 붙인 고대 헬라의 과학 서적들과 철학 서적들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지적 흥분이 유행했고, 파리가 곧 그 중심지가 되었다.

12세기의 파리는 중세시대 사상 처음으로 “교사들의 도시”(a city of teachers)라고 불리는 도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 있고 가장 지성적 소란을 일으키고 대다수의 동료 교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가장 오래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사는 바로 피터 아벨라드(Peter Abelard)였다. 아벨라드는 기독교학문 역사에서 작품이 저자보다 더 나왔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사례이다. 우리는 기독교 학문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마음과 영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지적 성취나 도덕적 탁

월성에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 아벨라드는 평생동안 세상적인 동기들 외의 다른 것으로는 흥분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공정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 실제로 그는 기독교의 주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았고, 기독교 학자로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교의학적 유비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많은 학자적 은총은, 그의 영혼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뚜렷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훨씬 초월하는 기독교 학자의 직무를 감당했다.

아벨라드는 『개인의 재난사』(*History of his own Calamities*)에서 부지 중 스스로를 매우 황폐한 모습으로 묘사했다. 상심한 친구를 위로하다가 불쑥 '자신이 처한 곤경은 친구의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기록했던 것이다. 그것은 학문에 대한 넘치는 열정을 기독교적 이상으로 통제하려다가 실패한 사람, 그것도 이미 일찍부터 자신의 실패를 알아챈 사람의 모습이었다. 분명히 그는 이쪽에는 학자의 업적이 있고 저쪽에는 도덕적 순전함과 겸손함이 있고, 그 둘 사이에는 일종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다고 알았지만, 웬일인지 그런 대응관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 결과들에도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성한 학습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배당된 귀족 영지 상속도 포기했던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학생 때부터 파리의 교사들에게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던 학생이었다. 그는 교사들이 너무 아는 게 없다며 교실에선 대놓고 망신을 주었고, 교실 밖에선 그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스스로 학교를 열고 교사가 되어 자신의 이전 교사들에게서 학생들을 훔쳐 갔다. 논리학에서 신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도 그의 큰 야심 때문이었다. 모든 학문의 여왕은 신학이었으므로, 논리학자보다 신학자가 되면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한 번은 그가 첫 신학수업 시간에 교수의 성경 지식을 요란하게 비난했다가 교수의 도발에 낚여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는 에스겔서 강의를 자기가 맡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외로 그의 강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교수는 자신에겐 전혀 감동스럽지도, 도움도 되지 않는 강의였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아벨라드 “자신은 그런 많은 박해들 덕분에 더 명성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그가 엘로이즈와 벌인 비극적인 연애 사건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연애 사건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가, 진정한 귀족의 낭만적인 사랑으로 꽃이 핀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사자 아벨라드는 그 사건을 ‘단순한 자부심과 정욕과 복수심의 발현’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자 학자로서 몰락한 원인을 ‘자부심과 정욕’ 탓으로 돌렸다. 자신이 지적 오만함에 부풀어 정욕을 손쉽게 해결할 대상을 찾았다가 유혹에 빠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철학이나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면 할수록, 그는 “특히 탁월한 극기의 은총으로 유명했던” 저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과 자신은 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다가 엘로이즈와 사랑에 빠지자 학문을 등한시했고, 결국 과거에 배운 것을 우려먹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엘로이즈가 아기를 낳게 되자 아벨라드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하지만 엘로이즈는, 역사적으로 독신생활과 철학적 업적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면서, 비록 소크라테스가 결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철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인류를 위해 창조된’ 아벨라드를 한 여자에 국한시켜 헌신하게 하는 것은 ‘수치’이자 ‘슬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을 반대했다 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 아벨라드가 그녀를 버리고 말 것이라고 오해한 엘로이즈의 삼촌이 친척들을 동원하여 그를 폭행하여 거세했다. 아벨라드는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욕은 거세로 끝장이 났고, 자신의 자부심은 교회 회의에서 정죄 당하고 가장 자부하던 저술은 소각 당하는 것으로 박살이 났다”라고 자조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부당한 재판이라고 여겼고, 실제로도 부당했던 그 재판이 정확히 어떻게 그의 지적 자부심을 박살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았다.)

여하튼 그는 친구들이 찾아와, 그 불행은 “육체의 덧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니, 이제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거룩한 임무에만 몰두하라고 한 위로 섞인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수도사가 되었다.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 아벨라드는 고적한 브레튼 수도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그는, 안에는 동료 수사들이 자기를 독살하려 하고, 담장 밖에는 대적들이 자기를 기다려 진을 치고 있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아벨라드는 그런 재난을 겪으면서 자주 제롬을 언급했다. 로마 시민들이 제롬을 동쪽으로 추방한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을 서쪽으로, 즉 파리에서 브리타니로 추방했다고 본 것이다. 그가 받은 재판 역시 제롬이 받았던 것처럼, “나 자신은 중상과 모략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의 후계자”라고 말할 만했다. 독신과 지적 업적 사이에 어떤 일대일의 관계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그 자신이 말하기도 했고 엘로이즈의 입을 빌어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벨라드가 제롬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언뜻 보기엔 아벨라드의 기독교인 학자로서의 경력이 그 야심과 연관된 사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번덕스럽고 병든 영혼이었지만 분명히 중세 전성기에 특별하다고 기록된 비범한 교사들 중 한 사람이었고, 그의 많은 작품을 한 번이라도 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의 영향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의 저술들은 그가 한 강의에서 직접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결론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다. (나중에 정죄 받게 되는) 삼위일체론을 비롯한 큰 기독교 신학서, 학생들을 위한 보다 간략한 입문서,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였던) 윤리학, (자연법이나 유대교에 비해 기독교의 탁월성을 변증하기 위한) 철학자와 유대인 및 기독교인과의 대화집, 그리고 저 유명한 『긍정과 부정』(Sic et Non)을 집필했다.

마지막 책의 서문에는, 자신의 집필 목적은 젊은 독자들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의심하면 탐구하게 되고, 탐구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 책에서 그는 “신앙은 인간 이성의 지지를 받는가, 아닌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살인은 합법적인가, 아닌가?” 등등 158개의 신학적 및 윤리학적 명제들과 관련하여 1,800개나 되는 교부들의 찬반양론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학생들로 하여금 각기 나름의 결론을 제시하게 했다.

그렇다고 아벨라드가 그런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다른 신학 저술들에서 많은 질문들에 대해 변증적인 대답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는 본문들을 다 모아서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책에서는

외경인 집회서(Ecclesiasticus)를 인용하여 자신의 삶의 핵심적인 신념을 이렇게 요약했다. “경솔한 자는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 아벨라드는 서양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강의와 저술을 통하여 당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생각하도록, 아주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한 사람이다. 당시는 젊은 유럽 사회가 자의식에 눈을 떠 기독교 외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고, 그 이슬람교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에도 대안적인 종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아벨라드는 기독교 신앙이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만 하고,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적이진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가 학자의 소명감에 대해서 어떤 매우 높은 종교적 견해를 가졌었다는 증거는 제시할 수 없다. 어쩌면 한 비평가의 말처럼 그는 단순히 “학문만을 추구한 학자”였다는 말이 옳은 평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스스로를 일종의 기독교 왕국이라는 고귀한 혈통을 깨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소크라테스 학도로 여겼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최소한 아벨라드가 소크라테스의 말을 약간 변경하여 “검토되지 않은 믿음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철저한 이성주의자는 아니었다. 임종 시 그의 침대 옆엔 계시록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교부들의 글과 성경의 권위를 그 둘이 일치할 때는 인정했다. 구원은 이성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믿음에서 이해로 나아가지, 이해를 통해 믿음에 이른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벨라드는 이해 획득에 성공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인문학과 고전문법과 수사학과 특히 변증학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사실, 회심 전에 인문학을 철저히 배웠던 성인(聖人)들에게는 회심 후에 거룩한

배움을 추구하라는 더 위대한 계명이 주어졌다고 그는 주장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은 후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교리(이해)라는 은총을 받았다고 했다.

아벨라드는 계시라는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을 적용하는 스콜라주의의 주요 저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제자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는 본문을 수집, 비교, 평가하는 그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세 시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신학 교과서를 집필했다. 아퀴나스는 롬바르드가 낳을 세운 그 (학문적) 도구를 수백 년 후에 잘 길들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요컨대, 개인적인 단점은 많았지만, 아벨라드는 기독교 학자 중 최고의 반열에 드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아벨라드가 죽고 한 세기쯤 후, 파리의 교사들이 스스로 '대학'이라는 조직체를 만들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아벨라드 시대와 마찬가지로 험난하고 험악한 논쟁들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아벨라드가 제기했던 중요한 질문, 즉 기독교 신앙이 새로운 지적 영향력을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그 영향력에 굴복하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기독교를 위협하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의 주요 자산으로 변모시킨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그의 생애와 성품에 관한 자료는 다소 빈약하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작품과 성품이 일치하는 사람이자 직업과 인물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는 분명히 옳은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성경을 조화시키는 작업은 엄청난 작업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파리의 인문학부에서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위협스러운 열광과 (어거스틴적이고 플라톤적인) 신학부에서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편협한 멸시 사이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가려면 위대

한 지성의 총명함과 성인의 인내심과 일류 학자의 통찰력과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경건이 필요했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과제 덕분에 “학자들 중 최고의 경건과 성인들 중 최고의 학식”을 갖춘 아퀴나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큰 키에 어두운 얼굴과 커다란 몸집, 불굴의 정신력과 굉장한 집중력, 엄청난 정서적 균형과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확고한 일념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의 사후 50년에 거행된 시성식에서 사람들은 그를 “부드럽게 말하고 대화를 좋아하고 쾌활하고 상쾌한 용모와 선한 영혼, 관대한 성품, 가장 인내하고 가장 신중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십대 때, 도미니칸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여 자신의 귀족 가문에 충격을 주고 또 반대를 받았다. 1244년에 출가를 했지만 어머니의 명을 받은 형제들에게 납치되어 일 년간 집에 갇히기도 했다. 형들 중 한 명은 ‘어여쁜 귀족 소녀’를 데려와 그를 유혹하려 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동정을 유지했고, 임종 시의 고백은 어린 아이의 고백과 같았다고 한다. 그는 결국 고향 나폴리를 떠나 파리와 콜로냐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에게 사사한다. 1256년 31세 때는 신학박사로서 신학을 가르쳐 달라는 파리대학의 청빙을 받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파리대학에는 도미니칸 수도회 출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고, 그에겐 학자 특유의 대중화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에 대한 염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단 앞에 엎드려 그 대학이 가진 어려운 문제 상황들을 생각하다가 시편 12편을 라틴어로 낭송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는 인생들에게서 주의 진리가 사라져 감이니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울며 기도하는 중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 한 천사가 도미니칸 수도회에 속한 한 존경스러운 노인 형

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형제여, 왜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느냐?’ 토마스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저를 대가(a Master)로 만들려고 하지만, 저의 지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교수 수락 연설을 어떤 주제로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보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박사의 책임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수락 연설은 [시편 104편 중] 다음 구절을 상술하면 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누각에서 산들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온 땅을 채우리로다.’” 토마스는 새롭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어나 그로부터 십팔 년 후, 사십구세의 이른 나이로 누울 때까지 교수직과 논쟁과 저술이라는 큰 짐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 그가 그 기간에 산출한 작품은 너무 많아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는 모든 내적 갈등과 자기 연민과 주관적인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계시는 동일한 진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간은 자신의 감각과 이성을 통하여 저 높은 곳에서 은총으로 내미시는 손길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부름 받은 자신의 평생의 사역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그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 많은 전설이 생겨난 것도 사실 그 안에 어떤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네 명의 비서에게 네 개의 다른 주제를 구술하다가,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다시 구술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의 제자 레지날드(Reginald)는 “그의 학습의 비결은 마음의 열심보다 강력한 기도였다”고 했다. 연구나 집필을 하기 전에, 논쟁이나 강의를 하기 전에, 그는 늘 혼자서 기도하곤 했다고 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 제단 앞에 나아가 의문들을 내어 놓고 한 동안 서서 울다가 자기 방에 돌아와 거기서 받은 해결책을 기록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때까지 기독교 지성이 고안했던 어떤 체계보다 더 큰 신학 체계를 구축했

다. 그러나 소천하기 세 달 전, 자신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레지날드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더 이상은 못해. 지금 나에게 제시된 것들에 비하면 여태까지 내가 기록한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생각돼.”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 인물과 그 작품이 일치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인물을 묘사하건 작품을 설명하건, 후대의 주석가들은 다 건전성, 균형, 중용, 철저함, 포괄성, 사고의 폭 등 동일한 용어들을 사용한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임의적인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고 보았고, 그 자신도 학자로서 절대로 임의적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작품에서 우리는 일체의 내적 갈등을 해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웅장한 객관성을 본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난사를 쓰지 않았다. 딱 한 번, 제단 앞에 자신이 청빙 받기에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일 외에, 우리가 아는 한, 그 때 이래 제단 앞에 가져 간 문제들은 다 자기 시대의 문제들이나 학문에 관한 문제들, 교회와 대학의 문제들뿐이었다. 그는 우선 자기 시대의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넓은 학문적 관심으로 양측의 주장에 관한 모든 논쟁을 집결시켰다. 그리고 아벨라드와는 다르게,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성에 근거하여 유명한 후렴구 “...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respondeo dicendum)라는 말로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아벨라드의 도전을 수용하여, 탐구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의 사람들을 학자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소명을 주시고, 과제를 주시면, 각자는 그 부르심에 나름대로 반응했다. 제롬, 어거스틴, 아벨라드, 아퀴나스는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독교 학자로서, 한 가지 또는 두세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받았다. 히브리-기독교 전통 자체를 재검

토하거나, 그 전통을 세속 문화와 연결시켜 해석하거나, 그 전통을 과학적 발견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과제를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학자로 소명 받은 기독교인의 다양성의 실례이지 획일성의 사례는 아니었다. 우리가 수십 명이 아니라 그 네 명만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후대의 기독교 학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했던 가장 근본적인 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책 안에서와 그들이 제기했던 질문들 안에 살아 있다.

제롬은 특히 그의 『서한집』(*Letters*)에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Confession*)에서, 아벨라드는 『긍정과 부정』(*Sic et Non*)에서, 아퀴나스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에 살아 있고, 각 책에는 각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대답해야만 했던 구체화된 질문들이 하나씩 들어 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키케로와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복음을) 알기에 이를 수 있을까? 과연 비판적인 지성을 기독교 신앙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과 세속 문화를 종합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 질문들은 물론 열광주의자들이 소위 ‘문예부흥기’(르네상스)라고 불렀던 시대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